

인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및 각 학과 선거 종료

경제학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재심의 끝에 당선

지난달 14일에서부터 15일까지 인문대, 사회과학대,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뒤이어 23일에서부터 24일까지 경제학과 선거가 치러졌다. 사회과학대는 총 재적인원 1971명 중 1069명(54.2%)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951표(88.9%), 반대 108표(10.1%), 무효 10표(0.9%)로 '은새미로'의 박찬양(경제 3) 후보가 정학생회장, 신경숙(경영 2) 후보가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박찬양 당선자는 "당선되어 기쁘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근 2000명의 학생들이 어깨 위에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꼭 이루고 싶은 공약에 대해 '전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오히려 공약 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경숙 당선자는 취업에 공론화에 집중하여 점차 간소화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

인문대는 총 재적인원 1386명 중 719명(54.2%)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595표(82.8%), 반대 56표(7.8%), 무효 68표(9.4%)로 '별솔'의 이주현(국문 4) 후보가 정학생회장, 윤규석(국문 2) 후보가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주현 당선자는 "급하게 출범하여 미흡한 점이 있어 학우분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선출해주셔서 학우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꼭 이루고 싶은 공약에 대해 '공약에 넣지는 않았지만,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우분들과 의욕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규석 당선자는 인대체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단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은 총 재적인원 328명 중 204명(62.2%)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74표(85.3%), 반대 13표(6.4%), 무효



17표(8.3%)로 '윤솔'이 당선되었다. '윤솔' 회장단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시는 학우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선대 학생회를 답습하여 학우분들이 즐거운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또한 "꼭 이루고 싶은 공약에 대한 물음에는 '집부의 낡은 설비를 고쳐 집부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학과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344명 중 213명(61.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82표(85.4%), 반대 24표(11.3%), 무효 7표(3.2%)로 '청춘'이 당선되었다. '청춘' 회장단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또한 "꼭 이루고 싶은 공약에 대한 물음

에는 "모두 다 이루겠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제학과 후보는 총 재적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하였으나 학칙 44조에 의거,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새벽까지 이어지는 재심의 끝에 당선 확정되었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비교과프로그램 도입,
어떻게 적용되나 **02**

사회
장학제도는
교육인가 복지인가 **03**

사람
이상한
신임 총장을 만나다 **05**

학술
인공지능으로 바라본
인간과 인문학 **06**

문화
한성대 골목의 숨겨진
'재미'를 찾아서 **07**

동정란

이정숙(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교수 이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한국 문학과 실학 귀향 탈향의 서사'(이정숙 외, 푸른 사상, 2016)가 출판되었다.

박준철(역사문화학부)교수 박 교수는 지난 3월 12일 "한국서양 중세사학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민규(융복합교육과정) 교수 한 교수는 지난 3월 4일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의 "표준화위원회 워킹 그룹 의장단"에 선출되었다.

사령

임
편집국장 박종민(국문 3)
수습기자 이주형(국문 1)
조성미(경영 1)
문지수(영어영문 2)
유동현(영어영문 2)

이상한 신임 총장 취임식 열려



지난 3월 10일 한성대학교 제9대 이상한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2월 1일부터 총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상한 총장은, 2020년 1월 31일까지 4년 동안 총장직을 역임하게 된다. 이상한 총장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성대학교 사무처장과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날 취임식에는 여러 내·외빈들이 참석했으며, 박래부 전 언론

진흥재단 이사장, 양창수 전 대법관, 김정호 한국주거복지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발전기금 전달도 이어졌다. 광성학 대학원 총동문회장과 대학원 동문 및 재학생들이 총 1억 13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상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장이 감내해야 할 무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의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먼저 능동적 변화를 통해 학교의 재도약을 꾀

하고, 재정이 튼튼한 대학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축하 화환으로 꽃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총 1140kg의 쌀은 향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강정윤 기자
psjy77@hansung.ac.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꼭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방문하시면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비교과 프로그램 도입, 어떻게 적용되나

지난 3월 30일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줄어들고 새로이 비교과포인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양진(경력개발지원팀) 차장을 만났다.

Q.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과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전공비교과 프로그램은 개별전공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선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은 행정부서나 교양학부 등 전공 외 분야의 기초역량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Q. 16학년도 신입생이 정규 8학기 내에 800pt를 획득하지 못하면 추가 학기 등록이 필요한가?

A. 원칙적으로 졸업인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므로, 추가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비교과 포인트를 획득해야 한다. 진로상담, 진로지도시스템 상의 활동 및 향후 추

가될 온라인 코스 등을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학기당 100pt 획득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8학기 동안 교과과정 외에도 비교과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존 재학생이 비교과 포인트를 학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A. 비교과 포인트를 학점으로 전환하려면 졸업사정 이전에 포인트 획득 및 학점 환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Q.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획득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가?

A. 학생들이 획득한 비교과 포인트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이미 개발완료했다. 현재 오류발생 가능성을 없애고자 시스템을 시험 테스트 중이며, 늦어도 이번 학기 말에는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획득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Q. 지급 포인트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A. 일반 비교과 제도는 각 프로그램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참여시간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다. 800pt가 교과 교육과정의 10학점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해 15시간(1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5~8pt로 계산된다. 그러나 연속성 있는 강의형 프로그램이나 현장 체험활동의 경우 유효시간을 고려하여 건당 포인트로 조정되었고, 2016학년도의 경우 공지가 늦은 점을 감안해 단발성 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10pt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핵심역량 진단결과 취약역량으로 파악된 분야의 프로그램은 포인트가 상향조정되었다.

Q. 비교과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번 제도 신설이 조금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학생들의 역량을 고루 발달시키고 한성대학교 센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도의 방향성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비교과 교육제도를 정착·발전시키겠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번 학기 중에 공지되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

김민식 기자 warmhello@hansung.ac.kr

제23기 앰버서더 결연식 열려



지난 3월16일 미래관 DLC에서 제 23기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앰버서더 결연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재학생의 오리엔테이션이 먼저 진행된 후,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이 만나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혁(한국어 교육원 센터장)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기회를 접하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학생들이 휴머니즘과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어, 문화 상호주의의 태도로 활동에

임하길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앰버서더와 외국인 유학생은 4월 8일 중간 간담회를 거쳐 6월 25일까지 10주간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박수진(영어영문 2) 학생은 "예전부터 한국에 여행이나 유학 온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꿈꿔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 앞으로 파트너가 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국인 유학생 류요연 학생은 "앰버서더를 통해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학습법 워크숍 열려

지난 3월 교육역량개발센터는 학습법 워크숍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본교 재학생 6708명 중 709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526명(74.2%)이 학습법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학기 학습법 워크숍은 시험 준비전략, 발표 스피치, 자기 주도학습을 주제로 열린다.

이에 지난 3월 24일과 31일, 미래관 ELC

에서 2015년도 학습전략 노하우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법을 발표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이후에 열린 워크숍의 세부 주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준비 중이며 추후에 공지를 할 예정이다.

학습법 워크숍을 기획한 임정연(교육역량개발센터 학습역량개발부) 책임연구원은 "비교과 포인트제도의 도입으로 학습법 워

크숍 참여시 회당 약 10포인트의 비교과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번 학기에 개최되는 학습법 워크숍에 모두 참여시 1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워크숍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학습력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미 기자 seongmi16@hansung.ac.kr

본교 수학경시대회 준비반, 2년 만에 첫 성과 거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34회 전국 대학생 수학경시대회'에서 강준현(전자정보 3)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학생 수학경시대회'는 (사)대한수학회가 1987년부터 매년 주최해왔다. 이 대회는 전국 대학의 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분야와 기타 학부(과)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분야로 나뉘며, 미적분학, 고등미적분학, 정수론,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기하학개론 등 대학교 수학과 1,2학년 교과과정 범위 내에

서 문제가 출제된다. 강준현 학생은 제2분야에 응시하여 수상했다.

지난 3월 10일 공과대학 학장실에서 열린 시상 수여식에는 공과대학장 이재문(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와 민경진(교양교직학부) 교수가 상장을 전달했다. 우리대학에서는 14학년도부터 수학경시대회 준비반을 운영해 왔으며, 민경진 교수가 소속 학생들을 지도해 오고 있다. 이번 수상은 경시대회 준비반이 운영되기 시작한지 2년 만의 첫 성과다.

이날 이재문 교수는 "이번 수상은 공과대학의 자랑이며, 학생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민경진 교수도 "수상을 축하하며,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학생은 이날 수상사에서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경시대회에서 입상하는 학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수소소감을 전했다.

김민식 기자 warmhello@hansung.ac.kr

동아리 박람회, Club Expo 열려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성관에서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학교 38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31일에는 낙산관 대강당에서 동아리 박람회 공연이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들불, 탈, 왕산악, TRIAX 등 4개 동아리가 무대에 올랐다.

(취재부)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6년 3월 7일(월) ~ 2016년 6월 3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다양한 유형의 글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확인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장학제도는 교육인가 복지인가

“ 장학제도는 교육의 영역. 대학의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향해야 ”



“ 저소득층 장학금은 복지의 영역. 대학은 복지 아닌 교육에 전념해야 ”

지난해 10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장학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성적장학금의 용도를 변경해서, 등록금의 100%를 면제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매월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성적장학금의 비중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대학들은 있었지만, 폐지한 것은 고려대학교가 처음이다. 이러한 고려대학교의 행보로 대학사회에서는 성적장학금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성적장학금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확대하는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한다. 장학제

도는 교육의 영역에 있고, 대학이 이것을 살피 현재 대학생들의 주머니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팀은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학생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지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다. 고려대는 ‘필요기반’ 장학금을 강화하여 장학금을 통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학생들 역시 이번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404명의 응답자 중 찬성하는 학생이 294명(72.8%), 반대하는 학생이 89명(22%)으로 찬성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윤정(고려대학교 학생복지팀) 주임은 “개편된 장학제도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 중에 심각한 반대 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가지 않으면 학업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 자체는 복지의 영역에 있고, 학교는 성적장학금을 따로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황재영(국문 3) 학생은 “대학 졸업의 메리트가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성적장학금까지 사라지면 취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특히 소득분위가 애매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고려대학교가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 직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장학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학생들과 개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것

은 학교 측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임재호 총장은 고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균형은 반드시 깨진다. 일부의 불만이나 문제점보다는 교육 철학에 주목해서 총체적 평가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는 장학제도 개편 후 첫 학기를 맞았다. 이것이 첫 번째 시도인 만큼 성적장학금 폐지가 대학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개편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장학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시도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알아라

법률용어, 정말로 잘 아시나요?

고소 · 고발, 피고 · 피고인 어떻게 다를까

고소, 고발, 피고, 피고인, 기소유예, 집행유예……. 언론에 흔하게 등장하는 말들이다.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서 정답을 하나씩 골라보자.

영문과 3학년 A씨(21세)와 2학년 B씨(24세)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다. B씨는 평소부터 나이 어린 선배 A씨에게 불만이 많았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B씨는 A씨 목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까지 날렸다. 참다못한 A씨도 B씨의 목살을 잡는 등 드잡이를 벌였다. 경찰서에서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폭행죄로(고소, 고발, 제소)했다. 형사는 두 사람을(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폭행을 받은 측면이 강하고, 목살만 잡았던 점을 감안하여(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싸움을 유도하는 등 죄가 인정된다며 법원에(기소, 제소)하였다. B씨는(피고인, 피고)이(가) 되어 법정에서 B씨는 “술김에 실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판결에 승복 못한다”며 2심 법원에(항소, 상고)했다.

[고소, 고발] 형사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고소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어느 여배우는 자신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고, 시민단체는 대기업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

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한편,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일은 고소가 아니고 제소라고 해야 맞다.

[피의자, 피고인, 피고] 가끔씩 연예인이거나 정치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이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뀐다. 수사기관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기소 여부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리하자면 수사 단계에 있으면 피의자,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과 ‘피고’는 엄연히 다르다.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바로 피고이다. 그러니까 피고는 죄를 지었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때로는 국가가 피고가 되기도 한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이다.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판결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이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다음은 집행유예이다. 범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2016년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는 반면,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소, 항소, 상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인정한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 2심법원에 하는 ‘항소’와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 민사사건은 판결문을 직접 받은 날 기준으로 2주 내에, 형사사건은 판결선고일부터 1주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참고로, 모든 괄호 안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단어가 모두 정답이다.)

김용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당신은 이미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

Freak Production

24시간 절찬 상영중

영상 콘텐츠 제작그룹 프리크 프로덕션

페이스북에서 프리크 프로덕션을 검색해 보세요!

01 대학능력평가

02 고스트 연애왕

03 산책

04 산수유의 요정

프리크 프로덕션은 MCN전문업체 TAG ON 과 함께합니다.

의화정

최근 IT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1950년대부터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조용히 연구되어 왔던 인공지능이 최근에 개최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경기로 인해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 속 가상세계가 아닌 실세계로 화려한 외출을 시작했다. 1990년대에도 서양의 바둑이라고 불리는 체스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정면승부가 펼쳐진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해프닝 정도로만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크게 다른 듯하다. 초등학교생부터 동네 어르신들까지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마저 갖게 된 것 같다.

필자도 20여년 전 박사학위 과정 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지능을 모사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했지만 여러 분야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심지어 특정 분야에 국한된 활용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가 예상치 못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했던 고급학습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기술들이 제시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컴퓨터와 제품들이 상호 연결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컴퓨터가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속도 향상과 컴퓨터간 협업으로 학습 속

도를 빠르게 단축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직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가속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학습 모델을 만들고,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습시킨 전문가의 역할마저 인공지능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연듯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떠오른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방법과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광현 교수 (IT융합시스템공학과)

삼학송

이 선거가 무섭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투표라고는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고작 세번 해본 것이 전부지만, 투표장으로 가는 길은 사회가 바뀔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 사실 이 선거가 너무 무섭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할지는 두렵지 않다. 진짜 공포는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번 총선은 안철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 두 사람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자 서로 싸움을 벌였다. 선거 운동에 싸야할 당의 자금과 힘은 이 싸움에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들은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 상태다.

이렇게 야당이 분열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거대 정당의 고질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당내 권력을 독점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여기 속하지 못한 당원들이 독립된 후보로 지역에 출마하는 형국이다.

한 쪽에서는 당이 두 개로 갈라졌고, 다른 한 쪽에서는 당의 내부가 갈라지고 있으니 이 거대 양당을 믿고 지지해 온 유권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누굴 찍어야 하는지 오로지 유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을 전부 낙선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한편 언론사들은 이 난장판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묘사할 뿐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 본 정치권은 아무런 답도 없는 험오스러운 곳이다. 심지어 모 방송국 앵커는 이대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들이 제대로 소개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은 선거가 가진 최고의 기능이다. 정당은 당연히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을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공약과 정책도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정치권에는 '막장 공천', '막장 선거'라는 말만 횡행할 뿐이다.

정치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언론사들이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각 정당을 정책선거로 끌고 가야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의 신문에서 정치권의 음모와 암투를 다루는 기사가 가득한 지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결국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혐오와 실망을 느끼며 투표를 해야 한다. 게다가 정치권과 언론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밀리고 밀려, 결국엔 유권자들에게 밀려왔다. 투표가 참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 상황을 보니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는 말이 과한 말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들을 바로잡을 수단은 더 이상 없다.

자기 할 일 다 못하고 남한테 미루는 사람은 언제나 밉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씩 올려붙여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밖에 없다. 이런 우리의 분노마저 표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눈여 선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밥상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어제 먹다 남긴 음식들이 말라비틀어져 접시에 달라붙어있다. 도무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수모를 계속 겪을 것만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뭐라도 입에 털어 넣고 성이라도 내뱉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참으로 무서운 선거다. 이 공포가 그저 공포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기자수첩

정직한 언론이라는 거짓말

총선이 다가오는 요즘, 수많은 정치 스캔들이 연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느 정치인 딸의 입학 특혜 의혹, 당대표의 옥새반란 사건, 권력자의 셀프 공천.....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언론이라는 나팔수는 신이나기 마련이고, 제각기 신나게 나팔을 불어대는 언론들의 가락 역시 제각각이기 마련이다.

기자들이 지역사회가 은폐하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의 영화 「스포츠라이트」는 이런 시기의 우리들에게 꽤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언론기관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극의 중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은 은폐된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절대적인 선

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터무니없는 사실에 분개하고, 주변의 비협조에 절망하고, 집요한 설득을 통해 마침내 진실로의 실마리를 하나씩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다지 비판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극 후반부, 성범죄 피해자들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변호사의 충격적인 증언을 통해 그들의 위치는 극적으로 반전된다.

그들이 원하던 진실은 이미 5년 전에 제보되었으며, 그걸 무시한 것은 바로 기자들의 사명적인 편집장이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대체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타박하는 친구의 말에 편집장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실,

그게 나도 모르겠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야만 했다. 과거의 악이 현재의 선이 되고, 과거의 선이 현재의 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언론은 항상 옳지 않다. 진실을 파헤칠 수도, 도리어 은폐할 수도 있다. 진실은 언론사의 사정에 따라 취사선택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들은 결국 그들의 편집부가 선택한 ‘진실’을 매일 아침 마주하게 되기에, 우리들은 늘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정직한 언론, 그들이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주문과도 같은 슬로건은 그들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그럴 듯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이주형 기자 (국문 1)

낙산에 올라

요즘 초등학교생들의 꿈을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대답이 BI와 SNS스타라고 한다. 온라인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 실감난다. 온라인 문화가 막 태동하던 시절에는 이런 매체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발전하게 되면, 콘텐츠의 질도 향상되고, 다루는 주제도 제한이 없이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실망스럽다.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득세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저 자극적이면 ‘좋아요’와 ‘별풍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지난 2월 첫째 주에 한 인터넷방송 BI들의 수입 순위가 공개되었는데, 1위를 한 BI가 한 주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2천만원가량이었다. 이

BI는 게임을 소재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게 되면 벌칙으로 머리를 미는 등의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 BI였다.

웬만한 대기업 연봉자들보다 훨씬 높은 수입 덕분인지,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방송과 콘텐츠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물론 그들의 수입만 본다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내용들은 과연 방송으로서 적절한 것일까? 어떤 BI는 압정을 깔아놓고 거기에 드러눕는다든지, 형광등을 씌어 먹는 기상천외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BI들은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불법으로 집에 악어를 기르고, 버려진 애완동물이나 길고양이를 먹이로

주는 방송을 했던 BI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진 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범죄가 몇 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범죄행위만 잘 피해가면서 방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바람직한 것일까?

혹자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얼룩진 유명 BI나 SNS스타들을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용인하고, 계속 소비해도 되는 것일까? 돈을 향한 이 위험한 줄타기가 된다면, 정말 영화처럼 누가 죽는 영상이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성현 (국문 3)

위험한 줄타기

독자칼럼

새내기들은 모르는 개강호

올해 한성대 신문사는 511호를 개강호로 발행했다. 511이라는 숫자는 신문사의 경험치와 경륜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는 묻고 싶다. 높아진 숫자만큼 역사도 깊어졌을 이 신문의 이번 개강호는 왜 이렇게 미흡한지 말이다.

대학에게 개강은 새로운 피를 수혈 받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소식통인 신문은 새로운 피들이 더욱 활발하고 용이하게 한성대를 누빌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는 새내기들을 위한 대학생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지속적인 구독자로 만드는 대중물의 역할도 하기에 개강호에는 새내기들이 읽을 만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강호에는 그것이 없었다.

개강호의 첫 면은 교과과정의 달라진

점과 수강신청의 혼란함을 전하고 있다. 물론 기존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맞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새내기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그들의 손에 신문을 쥐어줄 수 있는 문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앞면은 개강호의 얼굴인 만큼 개강의 주인공인 새내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부터는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등록금 동결과 복수전공, 새로운 장학제도, 학점교류 소식 등을 볼 수 있다. 그런 칼럼이다. 물론 마지막 지면을 휘황한 색들과 함께 캠퍼스맵으로 채우긴 했지만, 이걸 제외하면 개강호에서 새내기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4학년도에 입학한 필자는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문사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다. 필자는 본인의 인터뷰를 보기 위해 한성대 개강호를 열렬히 찾아보았고, 이 경험은 신문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낙산의 메아리와 같은 학교 커뮤니티를 몰랐을 때인 만큼, 나와 같은 신입생들을 인터뷰한 그 기사는 따뜻한 소통의 기분까지 느끼게 해주었다.

개강호는 아직 대학이 낯선 새내기들이 대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매체다. 따라서 개강호는 새내기들을 배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511호 개강호는 아직 대학에 익숙하지 않은 새내기들을 위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어렵기까지 했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명수진 (역사문화 3)

포토 에세이

지난 3월16일 열린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엠버서더 결연식에서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이상한 신입 총장을 만나다

“가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다시 오고 싶은 대학 만들어야...”

지난 1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이상한 신입 총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는 이상한 총장의 방침과 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3일 총장실을 찾았다. 이상한 총장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Q. 신입 총장이 되어 바쁠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는지?

A.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요즘은 학생대표들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총학생회도 구성되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서로 도움을 받을 것이 많은 것 같다. 계속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

Q.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학교의 재정문제 해결에 있어 총장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뛰겠다는 부분이었다. 현재 학교 재정상황은 어떤가?

A. 현재 우리학교 뿐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재정이 다 어렵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6년 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도 다 동결된 상태다. 3년 전에 정부당국에서 정원을 10% 줄일 것을 요청 받았고, 올해 4월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계획되어있다. 현재까지 매년 등록금으로 약 6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정원을 10% 감축하면 내년부터는 재정수입이 60억 원 정도 줄게 된다.

또한 대학구조조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도 기숙사 확보를 위해 자금이 투입된다. 현재 300석의 기숙사 자리를 700석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외부에 있는 숙소를 매입해서 기숙사로 활용할 구상인데, 여기 드는 돈이 50억 원 가량 된다. 앞으로 학교 외부와 내부에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6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그렇다면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A. 현재는 우리 대학을 대표할만한 학과나 학부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6~7개 교육과정을 브랜드화해서 3~4년 내로 키워낼 것이다. 어떤 교육과정을 키울지는 지금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외부에서 인지도가 쌓인 학과와 학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키워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처음부터 키워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기반이 있는 아이템들을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프로젝트 수주가 있다. 작년에 우리학교는 프로젝트 부문에서 약 65억을 수주받았으며, 이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 특히 교육 프로젝트는 교육부 대학평가 항목 중 교육비 환원율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 우리대학에서는 이미 2월부터 수주에 들어갔다. 현재 수주한 사업은 IPP사업, 코이카 사업, 서울시 교육사업 등이다. 특히 코이카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비전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다양한 방안으로 비전을 만들어주고 싶다.

Q. 취임사에는 공동체 질서를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A. 현재 많은 대학이 교육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 내부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학교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밖에서는 대학 간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대학보다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상황을 모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확립해야 한다.

일단 지금은 학교 공동체의 화합이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주요 구성원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다. 우리 대학은 이들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대학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이에 있는 다양



한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한 목적을 추구해 가면, 우리 대학은 4월의 잔인한 계절을 벗어나서 충분히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Q.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우리 학교의 공간 확보 사업이 늦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단 교육 공간은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외에 다른 공간들이 부족하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종합관에는 교육 공간들이 더욱 추가될 것이며,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다. 종합관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학교 내로 차량 출입이 금지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운동장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학교를 공원처럼 조성해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 것이다. 축구장처럼 큰 운동공간을 만들 수 없지만, 농구장이나 라켓볼구장처럼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운동 시설들을 많이 만들 것이다. 1년 후에 착수되는 학내 기숙사 공사까지 마치면 학교 기반을 다지는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 된다.

Q.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우리대학은 사고와 표현 프로그램, Writing 센터,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IPP 사업, 해외 봉사 프로그램 등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두었다.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우수 사례로 연구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충분히 많은 학생

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활용한 후에는 많은 피드백을 주길 바란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낸 등록금 이상의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Q.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신입 총장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그동안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적었다. 정말로 좋은 대학은 고등학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대학,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다시 와보고 싶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와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총장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상담신청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외국인 학부생
2. 상담 기간 : 2016년 3월 7일(월) ~ 2016년 6월 3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다양한 유형의 글
4. 상담 내용 :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단의 메뉴에서 '상담'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무엇이 인간의 정체성인가?

인공지능으로 바라본 인간과 인문학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공지능의 실체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치 인공지능을 SF 영화에서처럼 인간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는 점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고의 존재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개발될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 가까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곧 실용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인공지능의 시작은 사실 튜링이 사고할 수 있는 기계, 즉 튜링 기계를 생각할 때부터 태동되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를 푼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암호를 푼 기계의 기본적 개념이 오늘날의 컴퓨터에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컴퓨터는 튜링 기계와 다른 것이 아니다.

튜링은 컴퓨터의 사고 능력과 인간의 사고 능력을 구별할 수 없는 단계를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나의 방에는 사람이 다른 방에는 컴퓨터가 있을 때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질문자가 어느 쪽에 사람이 들어있는지를 잘 모를 때 튜링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 최근 영국의 레딩 대학에서 유진이라는 우크라이나 출신 13살 소년을 가상하여 만든 인공지능이 튜링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

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은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를 상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20년 전에 '별이 11살'이나 '사이버 HOT'와 같은 대화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실제 대화 내용을 보고 사람 사이의 채팅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본격적인 인공지능은 아니다. 그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챗봇(chatbot)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시리, 코타나, 구글 나우와 같은 챗봇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실용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고, MS나 구글은 좀 더 인간과 닮은 챗봇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알파고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은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이용한 특정한 활동을 특정 분야에서만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의 능력은 해당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가능한 것은 최근 많은 기술의 진척을 보인 신경망식 딥러닝 학습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견거나 말하는 기술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배우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바둑을 두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지식을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처럼 학습하여 결국 컴퓨터가 가진 계산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앞설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가진 학습 능력에는 분야의 제한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호기심을 느끼며 자기가

학습할 내용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탐구하여 지식의 지평을 스스로 넓혀가고 넓혀간다. 이러한 능력까지 기계가 흉내 내려면 아직도 멀고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존재라 자신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려는 욕망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공학이나 수학적 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지능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작동은 뇌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학습된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언어를 통해 많은 데이터로부터 절차적 추론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단순히 효율뿐 아니라 윤리와 정의에 대해 사고하고 합의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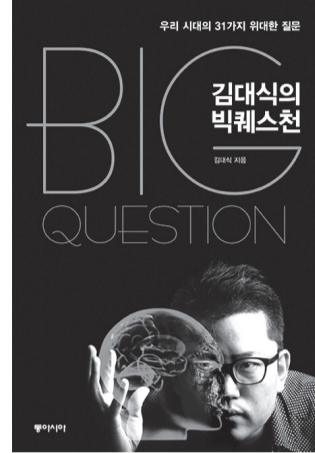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과연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궁극의 결과는 무엇일까? 영화 her에 등장하는 OS 사만다는 과연 인간의 마음과 닮은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그저 기계의 작동일 뿐일까?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인간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문학과 인공지능의 연구는 어쩌면 그 목표가 같은 것일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히 공학적 결과물이 아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초미의 과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고창수 교수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



김대식의 빅퀘스천

저자 : 김대식
(카이스트 전자전파과 교수)
출판사 : 동아사이
출판일 : 2014. 12. 3

책소개 : '김대식의 빅퀘스천은 뇌 과학자의 눈으로 본, 31가지 철학적 질문들을 소재로 한 책이다.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 사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가 버무려져 독자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아침마다 지하철로 등교하고, 컴퓨터로 과제를 하며,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처럼 기계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계문명은 동시에 우리의 일거리를 빼앗아 가기도 한다. 과거에 인간이 하던 일의 상당수는 이미 기계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 생각하는 해 본 적이 있는가? 인공지능에게 자의식이 생길 거라고 예측조차 안 해봤을 수도 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책은 랍비 유다의 골렘 이야기를 통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전달한다. 골렘이 만들어진 목적은 유대인 구원이었고, 골렘은 약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유럽인들을 무찌른다. 여기까지 골렘은 유대인들의 목적을 이뤄주는 좋은 인공지능이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세상을 파괴한다. 이 이야기는 힘과 지능을 가진 기계는 언제나 세상을 파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이야기를 본 독자들은 저자가 너무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저자가 책 속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비해 나약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인류 멸망의 원인 TOP10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다. 당장 인공지능을 상대로 바둑경기에서 패배를 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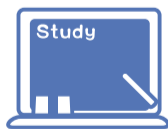
1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기계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어느새 기계는 서비스업까지 진출했고, 노동자들이 또다시 기계를 파괴하게 되는 신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직업대결에서 패배하고 있는 인간이 미래에도 계속 인공지능을 거느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다. 저자가 비관적인 관점으로 책을 서술한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비해 낮은 인간의 의식을 더 고양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바둑경기에서도 인간이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만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또 다시 인공지능의 발전을 방관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는다. 구글은 계속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알파고를 개발할 것이고, 또한 인간만이 가진 능력을 거뜬히 해내는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할 것이다. 인간의 방관이 계속 이어진다면 새로운 인공지능에게 인간은 또 다시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아직도 SF소설 속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 같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책이다.

조성미 기자 seongmi16@hansung.ac.kr



튜링 : 영국의 수학자, 알고리즘과 계산개념을 튜링 기계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형식화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공부 어때?

윤재건 교수의 '자동차 문화와 구조'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을 배우는 것 외에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다. 하지만 브랜드와 차종부터 시작해서 연비, 엔진과 기관들, 부속품, 점검 등등 자동차에 관한 지식은 아주 방대하다. 게다가 자동차 관련 지식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 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위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동차 속에는 공학적·사회적·문화적 코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윤재건(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동차공학', '자동차구조와 관리'등 자동차에 대한 많은 강의를 개설해왔다. 2013년부터는 '자동차 문화와 구조'라는 교양 강의로 우리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학기에도 동명의 교양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번 강의에서 자동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들은 '구조'와 '문화' 두 부분으로 집약된다. 엔진, 변속기, 매뉴얼 등 자동차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차량의 점검과 유지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점

검과 유지관리는 자동차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윤재건 교수는 "자동차는 기계다. 그래서 때로 고장이 날 수 있다"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런 기계 이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알고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의 내용에는 기술적 모순 관계나 디젤 엔진 등 자동차 구조에 대한 상식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술적 모순 관계는 '엑셀 반응'과 '연비'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량의 가속이 빠르다면 이는 '엑셀 반응'이 빠른 것이다. 스포츠카처럼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가속이 빠른 형태의 차량은 연비가 나빠진다. 반대로 연비를 좋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엑셀레이

터를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 자동차가 된다. 이렇듯 두 가지의 기술이 서로 충돌하여 그 장점들을 모두 취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기술적 모순 관계다.

또 디젤을 연료로 쓰는 차량 같은 경우 휘발유가 비쌀 때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미미하다. 디젤 차량은 1년에 2만 km 이상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다. 흔히 디젤 차량은 환경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윤재건 교수는 "요즘은 디젤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서 오염 물질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잘못된 상식을 지적했다.

강의는 자동차를 구입 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들이나 자동차 보험처럼 일상적인 궁

금증에도 접근하고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 자동차와 새 자동차 중에 무엇이 좋을지, 이 부분에서는 목적에 따라 어떤 차종이 적합할지, 사고나 비상 상황시의 대처 방안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또 자동차와 관련한 할부, 리스, 렌트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들도 여기 포함된다.

운전만 알아서는 자동차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산임과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동차 상식'을 공부해보길 권한다.

강정윤 기자 psjy77@hansung.ac.kr

운전밖에 모르는 당신을 위한 자동차 상식

한성대 골목의 숨겨진 '재미'를 찾아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막 캠퍼스라이프를 시작한 새내기들은 공강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즐거운 고민에 빠진다. 한편 전공공부와 취업준비에 지친 재학생들은 잠깐이라도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등학교 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한성대 골목은 얼핏 단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대학생활의 재미를 더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놀거리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오랜 시간 동안 골목을 지켜 종이 냄새가 가득한 책방, 곱은 허름해 보이지만 최신기기가 꽉 찬 오락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당구장. 당연하게 지나쳤던 장소들이 새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아날로그의 추억, 동화 비디오 책방

우촌관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낯설지 않은 간판이 눈에 띈다. 노란색 간판이 정겨운 추억의 장소, 동화 비디오 책방이 있다. 동화 비디오 책방은 요즘 유행하는 만화카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고유의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학교와 오랜시간을 함께하는 동화 비디오 책방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책방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 2만 5천권의 많은 책들이 독자들을 반긴다. 또한, 다소 오래된 분위기와는 다르게 매주 화, 목, 금, 삼일에 걸쳐 신간이 들어올 정도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 사는 학우들이나 공강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 학우들이 자주 찾는 곳

이기도 하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이 취미 생활을 위해 소설이나 만화책을 구매하는 다소 부담스럽다. 개인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도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면 더욱 그러하다. 동화 비디오 책방에서는 정가의 10%라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도서를 빌릴 수 있다. 동화 비디오 책방의 허동석 사장은 "원하는 장르의 만화나 소설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며 "얼마든지 추천을 부탁해도 된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문화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문득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지는 때가 온다면, 책방에 들러 오래된 책들이 가진 추억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문지수 기자 answn15@hansung.ac.kr

500원의 안식처, 우리게임장2

학업과 취업준비로 바쁜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단돈 500원으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청춘의 안식처로 남아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30년 가까이 한성대를 지키고 있으며, 1990년에서 2010년도까지 이어지는 오락실의 몰락기에서 살아남은 '우리게임장2'이다.

역에서 한성대로 오는 길목에 위치한 '우리게임장2'는 소위 '네임드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오락실이다. 타지에서 게이머들이 '원정'을 오는 곳이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한성대에 간다"고 하면 "우리게임장2에 간다"는 말일 정도로 그 유명세는 드높다. 오락실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층에는 10여종에 이르는 최신예의 유명 리듬게임들이 위치해있으며 지하

층에는 철권7을 위시한 격투게임기들이 위치해있다. 특히 리듬게임만큼은 강남의 대형 오락실이 한수 접어줘야 할 정도로 라인업이 출중하다.

추천하는 게임은 오락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태고의 달인'이다. 북채로 거대한 북을 두드리는 리듬게임으로, 귀여운 캐릭터와 쉬운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또한 대기인원이 적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최근 오락실이 쇠퇴하면서 더 이상 오락실이란 존재가 예전만큼 현대인들과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빠박한 일상 속, 가벼운 기분전환겸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쥐고 '우리게임장2'에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이주형 기자 jh@hansung.ac.kr



한 큐의 쾌감, 플루토 당구장

치열한 계산을 통해 친 한 큐에 의해 빨간색 공이 두 개의 흰색의 공을 맞추었을 때의 쾌감이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러한 쾌감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13년간 한성대 학생들의 놀 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플루토 당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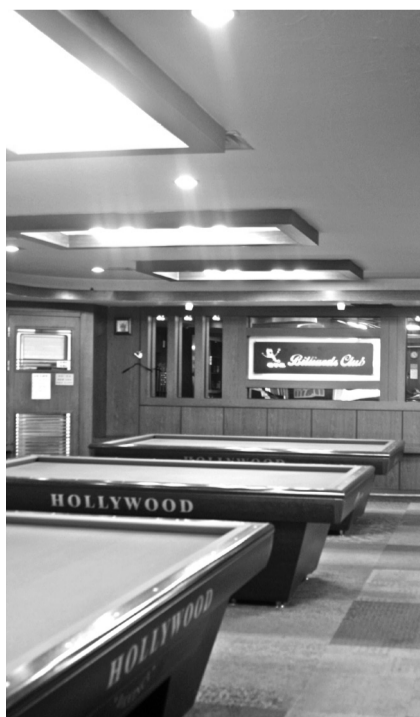
역에서 한성대 방향으로 5분 정도 걸다 보면 플루토 당구장이 있다. 이곳은 이용자의 80% 이상이 한성대 학생일 정도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익숙한 곳이다.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10개의 각색 구대와 열 맞춰 놓여진 큐대가 우리를 반긴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일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그렇지 않다. 플루토 당구장 사장은 "분위기가 깔끔하고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 학생들이 조용하고 청결하게 장소를 사용하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장님의 각별한 관리로 당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구대에서 당구를 즐길 수 있다.

당구장을 방문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게임을 통해 풀려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스포츠를 통하여 학우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웃으며 땀을 흘리던 모습은 한성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소하게나마 친구들과 경쟁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싶다면 플루토 당구장에서 자신의 한 큐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유동현 기자 ehdvk6392@hansung.ac.kr



편견과 아픔을 감싸는 따뜻함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마치 수채화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영화는 시종일관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처럼, 고요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연한 톤의 색감은 따스한 분위기를 불어 넣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처럼 영화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무심한 듯 간소하게 그려진 배경을 통해 영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화의 내용은 대부분 어렵고 직적하다.

영화 속 세계는 곰들이 사는 지상세계와 쥐들이 사는 지하세계로 극명하게 갈려있다. 이 두 세계는 편견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한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주인공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은 두 세계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쥐 셀레스틴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주변 쥐들은 그가 치과의사를 하도록 강요한다. 쥐의 세계에서는 치과의사가 최고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곰의 이가 필요하다. 셀레스틴은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곰의 세계로 올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곰에게 발각되고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한편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겨울잠에서 깬 어네스트는 구걸을 위해 도시로 나간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음악을 연주한다. 하지만 곰들은 그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네스트는 '공공질서 방해'로 벌금을 물게 된다. 배고픔을 해소하지 못한 어네스트는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



다가 셀레스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편견에 둘러싸여 상처받은 두 주인공은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쥐와 곰이라는 종의 차이,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르는 편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결국 셀레스틴은 어네스트의 편견어린 시선을 이기지 못해 지하로 내려가서 잠을 청한다. 잠에 든 셀레스틴은 깊은 악몽을 꾸며 발버둥친다.

이 소리를 들은 어네스트는 셀레스틴을 달래며 연민을 느낀다. 잠에서 깬 셀레스틴은 울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자신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이 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픔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 아픔이 같은 것임을 느끼며 서로를 감싸준다.

영화는 두 주인공의 갈등이 해결되는 이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셀레스틴이 악몽을 꾸는 장면에서는 어둡기만 했던 배경이, 어네스트가 셀레스틴을 달래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느낌의 갈색으로 바뀌면서 시각적인 감동을 준다.

항상 편견과 아픔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 무거운 주제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감싸고 있다. 영화는 우리에게 편견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의 온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유동현 기자 ehdvk6392@hansung.ac.kr

List

「여학생 : 유 플 잇 러브 2015」
클로드 피노토 / 소피 마르스, 뱅상 랭동 / 1988

「슈퍼히어로 저스티스 리그 : 둠 군단의 공격」
릭 모라레스 / 조쉬 키튼, 카리 페이튼, 제임스 아놀드 테일러 / 2015

「귀타귀」
홍금보 / 홍금보 / 1980

「룩키 호러 픽처 쇼」
짐 서먼 / 톰 커리 베리, 보스트워 수잔 셔먼, 리처드 오브라이언 / 1975

「롱기스트 라이드」
조지 킬만 주니어 / 브릿 로버트슨, 잭 휴스턴, 스콧 이스트우드 / 2015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크리스토퍼 맥컬리 / 톰 크루즈, 제레미 레너, 사이먼 페그 / 2015

「배트맨 vs 로빈」
제이 올리바 / 제이슨 오마라, 스텔러트 앨런 / 2015

「벨벳 골드마인」
토드 헤인즈 / 이완 맥그리거, 조나단 리스 아이머스, 토니 콜렛, 크리스찬 베일 / 1998

「수취인불명」
김기덕 / 양동근, 반민정, 김영민, 조재현 / 2001

「앤트맨」
페이튼 리드 / 에벤젤린 릴리, 폴 러드, 마이클 더글라스, 크리스토퍼 / 2015

「어바웃 리키」
조나단 드미 / 메릴 스트립, 세바스찬 스탠 / 2015

「에베레스트」
발타자르 코르마쿠르 / 제이크 질릴할, 조슈 브롤린, 제이슨 클라크, 존 호츠카, 로빈 라이트, 키아라 나이틀리 / 2015

「인랑」
오키우라 히로유키 / 후지키 요시카츠 / 1999

「중형사해」
오우삼 / 주윤발, 장국영, 중추홍, 호풍 / 1991

「칠수와 만수」
박광수 / 안성기, 박종훈, 배종옥 / 1988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오스카 요나손 / 하동훈, 최효종, 김원호, 조지훈, 양유진 / 2011

「판타스틱 4」
조쉬 트랭크 / 케이트 마라, 마일스 텔러, 마이클 B, 조던 / 2015

「퐁네프의 연인들」
레오 까락스 / 줄리엣 비노쉬, 드니라방, 클라우스-마이클 그레버 / 1991

「화장 : 삶과 사랑의 두 얼굴」
임권택 /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 / 2014

「히트맨 : 에이전트 47」
알렉산더 바흐 / 제커리 쿼트, 토머스 크레취만, 루퍼드 프렌드 / 2015

내 얘기 한 번 들어볼래?

한성대 신문사 기자가 되면...

개인사물함, 개인책상, 개인컴퓨터, 볼펜과 기자수첩, 무한리필은 기본이고
 기자명함, 기자증, 기자인증서, 가 널 기다리고 있어.
 활동에 따라 원고료, 활동비, 장학금 지급까지!

현직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님의 DSLR 카메라 사진 교육과
 오마이뉴스, 한겨레, 민연련, 교수신문에서 열리는 빵내뽕한 커리큘럼의 온오프라인 기자교육 기회도 열려있지!

그리고 돈 으론 절대 살 수 없는, 내 이름이 들어간 신문기사와 취재를 하며 만나게 되는 황금인맥들
 멀리서 찾지마! 여기 다 있어!

취재, 기사작성? 어렵지 않아!

40년간 쌓아온 선배 기자들의 노하우만 있다면 문제 없어!

생각하지! 뛰지! 뛰치지!

한성대신문사 제41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모집인원 및 분야	00명, 학내 뉴스 및 학술/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집공고를 통해 다운로드, 신문사 방문하여 직접수령) 2차- 면접전형(추후 개별연락)
활동혜택	개인사물함, 개인책상, 개인컴퓨터, 기자수첩 및 문구류 제공, 매월 기자 활동비 및 매호 원고료 등 장학금 지급 기자 명함, 기자증, 기자 인증서 발급, 신문사 내부 기자교육, 외부 전문기관 주최 기자교육, MT 및 워크샵 참여 40기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지원방법	지원서 작성 후 신문사로 제출 혹은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 hansungnews@gmail.com)
문의	전화문의: 02)760-4186 / 카톡, SMS 문의: 010-6425-4852 / hansungnews@gmail.com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구 우체국 건물 2층)
모집기간	2016년 4월 29일(금) 낮12시까지

